

이제는 오직 민생

이제 저 권영진은 국가와 지역,
그리고 우리 달서병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혁신의 길을 가겠습니다.
달서병이 기다려 온 큰 변화가
오롯이 민생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과 원발엔 오기,
오른발엔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약력

경북 안동 출생
대구 청구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박사
계명대학교 석좌교수(現)

대표경력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前)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前)
서울시 정무부시장(前)
제18대 국회의원
제13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제33, 34대 대구광역시장



충성! 예비역 육군병장 권영진 인사드립니다.

저도 1985년 1월 육군 병장으로 제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청춘을 바치는
국군 장병 여러분의노고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2 달서구병 국회의원 후보 권영진

사전투표일 4월 5일(금)~6일(토)

2일간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달서병이 화 바뀔니다

두류신청사 원안 완공
두류관광특구 지정
서대구순환 모노레일 건설



2 전)대구광역시장 권영진

큰일 해 본 큰 정치인이라야 달서병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낙후된 달서병을
대구발전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 시키겠습니다.
진정한 보수의 품격, 빛나던 TK정치의
위상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권영진이 해내겠습니다.

- ✓ 한나라당 비대위원(前)
- ✓ 서울시 정무부시장(前)
- ✓ 제18대 국회의원
- ✓ 제13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 ✓ 제33·34대 대구광역시장

전)대구광역시장
권영진 2



제가 시작한 두류신청사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대구광역시장을 역임하면서
최고 수준의 공약이행을 실천했습니다.
권영진은 큰 일 해본 검증된 큰 일꾼입니다.

[민선 6기]

대구시장 공약완료·이행률

권영진 87.18%
SA(최우수) 등급

(공약이행완료분야, 주민소통분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결과 (2018년 3월 26일)

[민선 7기]

대구시장 공약완료·이행률

권영진 77.94%
SA(최우수) 등급

(목표달성분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결과 (2022년 3월 31일)



누구도, 아무도 하지 않은 일! 권영진은 해냈습니다

저 권영진은 대구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산업혁신, 공간혁신, 시정혁신을 추진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신공항, 신청사, 취수원 이전 등
대구 오랜 숙원 사업들을 해결했습니다.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십 수 년 동안 두 번이나 실패했던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 계획을 전국 최초로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통해서 두류정수장 터를 신청사 부지로 결정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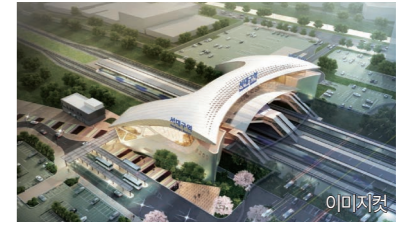
K-2군공항 이전과 TK신공항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30년 간 대구의 핵심적인 숙원사업이었던 K-2군공항 이전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국가사업으로 만들고, 이전부지를 결정했습니다. 경상북도 군위군을 대구광역시로 편입시킴으로써 대구는 특·광역시 중 가장 면적이 넓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서대구역사와 4차 순환도로를 완성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1도시 1역사 방침을 끈질기게 설득해서 서대구KTX 역사를 건설하고, 8여 년의 난공사 끝에 제4차 순환도로를 완성하여 사통팔달로 뻗어 나가는 대구 발전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전통산업을 친환경 첨단산업으로 바꿨습니다

섬유중심의 전통산업을 물산업·로봇산업·미래차 등 친환경 첨단 산업으로 혁신해서 대구 산업경제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켰습니다.





이제, 달서병은
새로운 중심이 됩니다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오직 달서발전에 모두 쏟아 붓겠습니다

대표 공약 1 두류신청사는 공무원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문화 복합공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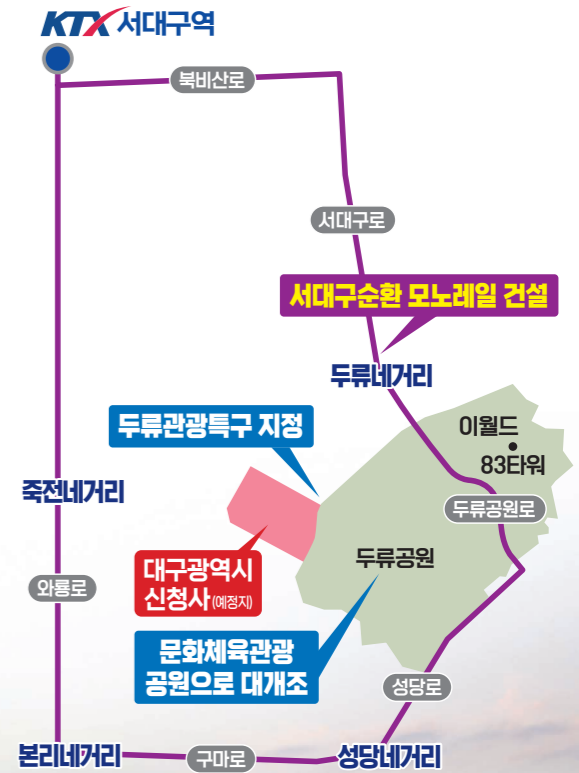
신청사에서 달구벌대로까지 광장과 공원으로 연결되고 주변에는 문화시설과 상업시설이 배치되는 세계적인 랜드마크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대표 공약 2 두류신청사, 이월드와 두류공원 일대를
두류관광특구로 지정하여 세계적인 관광공원으로!

신청사, 이월드와 두류공원 일대를 두류관광특구로 지정해서 누구나 찾고 싶은 차별화된 관광인프라를 갖춘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대표 공약 3 서대구순환 모노레일 건설로
신공항 접근성을 높이고
달서병은 테마형 명품관광지로 조성!

서대구역에서 출발하여 죽전-본리-성당-두류를 순환하여 서대구역으로 이어지는 서대구순환 모노레일을 건설하여 신공항의 접근성을 높이고 역세권 개발과 관광자원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큰일꾼 큰정치 권영진!

달서병 주민의 삶이 확 바뀝니다

공원 두류공원을 테마형 명품공원으로 대개조하고 주민 여가 및 체육시설 확충!

두류공원을 문화관광 특화공원으로 만들고, 두류공원로로 단절된 이월드와 연결하여 문화체육과 관광콘텐츠가 어우러진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주거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중단되거나 담보상태에 있는 재개발·재건축을 조속히 추진!

현재 진행되거나 중단된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조속히 추진하고, 서대구순환 모노레일을 따라 새로운 역세권 형성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서대구순환 모노레일과 두류관광특구로 젊은 세대와 세계인이 찾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부활!

경부고속철도, 신공항 연결철도, 달빛철도가 연결되는 서대구역에서 서대구순환 모노레일을 타고 두류관광특구로 모이는 관광객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특색 있게 살려 나가겠습니다.



교육 초·중·고 교육환경과 영유아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인프라를 구축하여 명품교육도시로 도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인프라를 확충해서 우리 지역을 명품교육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복지 주민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경로당을 건강복지 허브로 기능 확대!

본동사회복지관 별관과 금봉복지관 신축 등 사회적 약자와 주민이 함께하는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경로당이 어르신 건강복지 허브로 기능이 확대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가 앞산 별빛캠핑장 일대를 체험형 가족휴양공간으로, 학산공원은 근린여가체육공간으로 재단장!

달서 별빛천체과학관을 건립하고 청소년수련관, 승마장, 별빛캠핑장, 송헌배수지를 생태친화적인 둘레길로 연결해 자연탐방 및 체험 학습장으로 만들고, 학산공원은 인근 주민의 건강증진공간으로 재단장 하겠습니다.



실전에 강한 권영진의 추진력은 다릅니다

행복드림 In

달서병



권영진의 정치혁신이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윤석열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고
총선승리와 보수혁신으로 국민의힘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확고한 기반을 닦겠습니다.

종북좌파들의 거짓과 선동에 맞서고
분열된 보수를 통합하여
자유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는 보수정치의
새로운 리더가 되겠습니다.

“
대구와 달서의 발전을 위해
대통령을 움직이겠습니다
”



오직 정치혁신을 위한 한길! 대한민국 보수정치를 이끌겠습니다

저 권영진은 한나라당으로 입당한 이후 지난 20여년 동안 단 한번도 당을 떠나지 않고 당의 혁신과 승리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2004년 3월 당이 존립의 위기에 처했을 때는 박근혜대표와 함께 천막당사를 주도하며 당의 전면적인 혁신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보수정치의 미래를 생각하며 한나라당 '미래를 위한 청년연대' 사무총장으로 오세훈·원희룡·정병국·임태희·김부겸 등의 인재를 영입해 소장개혁그룹을 만들었고, 18대 국회 '민본 21'의 간사(대표)로 초선의원 개혁 모임을 주도했습니다. 이제 다시 뜨거워진 혁신의 마음을 보수혁신과 국민의힘의 승리에 모두 바치겠습니다.

큰일 해본 큰 정치인! TK정치의 위상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지금 TK정치에는 진정한 리더가 없다고 합니다. 대선 의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리드하는 의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각자도생의 정치는 지역의 희망과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없습니다. 스물 다섯 명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뭉쳐서 TK라는 하나의 공동운명체에서 미래와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과거의 TK정치답게 리더를 중심으로 뭉쳐서 지역의 여론을 확실하게 대변하는 역할을 저 권영진이 해내겠습니다. 진정한 보수의 품격, 빛나던 TK정치의 위상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